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앞 표지: 가나, 구자시에 살고 있는 해리와 엘리자베스 시르풍 부부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있다. 왼쪽부터 아이작, 해리스, 레이첼 그리고 벤지민. 뒷 표지: 가나의 케이프 코스트 (위의 왼쪽); 나이지리아의 두 젊은 회원들 (위의 오른쪽); 스테이크의 타코라디 와드 출신의 교사들 (아래). 복음은 아프리카에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 "준비된 사람들" (32쪽) 및 "아프리카의 복음의 개척자들" (36쪽) 참조.
표지 사진 촬영: 이 데일 르베이론

어린이란 표지:

레베카 파바레토는 버스를 타고 이태리 중부에 있는 학교에 간다. "친구 사귀기" (62쪽) 참조. 표지 사진은 파바레토 가족의 허락을 얻어서 게재함.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 신앙의 열쇠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2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 카산드라 린 트사이9
 청소년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조이 샌더슨 런던버그18
 한 밤 중의 평안 안나 모라 몬테레이26
 준비된 사람들 :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이 보낸 미술품 및 기념물
 마조리 드래퍼 콘더32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 이 데일 르베이론36

청소년란

노력의 예술 자넷 토마스12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필 래쉬카16
 독자를 위한 참고 사항28
 영원을 위한 도로 여행 리사 에이 존슨46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1
 방문 교육 메시지 : 침례의 축복을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25
 교회 및 지역 소식65

어린이란

스펜서 더블류 김볼 켈렌 리스 아담스50
 프랑고 자매와 성전 조셉 비 워스런 장로52
 심심풀이 : 성구 계산 문제 테리 리드53
 이야기 : 진정한 간증 리네트 버크 해일54
 함께 나누는 시간 :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디 에드워드58
 어린이 친구에게 : 특별한 조장 버지니아 브라잇60
 친구 사귀기 : 이탈리아 시에나의 레베카 파바레토 디앤 워커62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간-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애스 몬스
심사자도 정원희: 하워드 더글러스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앨 넬슨, 말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벨러, 조셉 비 워스라, 리처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헤일즈
편집인: 렉스 디 페너, 조 제이 크리스티안.
고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스펜서 제이 쿤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앨 니버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그래픽 부장: 엘 앤 가와사키
성도의 빛: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말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켈
편집인 보조/어리안: 디앤 워커
스캐줄 관리: 마린인 마틴데일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랭겐
디자이너: 세리 쿡
생산 관리: 레이놀드 제이 크리스티안, 제니퍼 테트와일러, 제인 앤 켈프, 데니스 커비
구독 담당 스태프:
발행 부수 책임자: 토마스 앨 피타슨
배부 부장: 조이스 랜스
마케팅 부장: 켄트 에이치 소렌슨

통 권: 제338호, 제31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리-1-3166
발행일: 1994년 5월 1일(월21일)
발행인: 한 인 심
편집인: 한 상 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평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심일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2 번역 승인-10/92
May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5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우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이 훌륭한 보물

특별한 간행물

저와 저의 가족은 1990년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통치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동독)에 속해 있었던 부호홀프에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 관리들이 말일성도 잡지를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독일어판 데 스테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 서적 클럽을 통해 동독 말일성도들에게 책을 보내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서독 회원들은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희생 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달 저희를 더욱 가까이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교회와 관련된 훌륭한 책자를 받았습니다.

대관장단과 동독 정부 관리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그 규제가 풀림에 따라, 우리는 데 스테른을 정기 구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매우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이 훌륭한 보물을 받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매호마다 저의 가족 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총 관리 직원들의 말씀과 기사들은 저희에게 영적으로 큰 힘을 주며, 저희가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관한 기사를 좋아합니다. 세상 곳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저는 쇠막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얻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는 참으로 특별한 간행물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 잡지에 나오는 기사를 기초로 해서 가정의 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관장단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어린이란의 기사들을 무척 좋아하며, 그것들을 잘 모아 두고 있습니다.

제이 이그나시오 로페스 가족
멕시코 과달라하라 리포르마 스테이크 토날라 워드

재활동화됨

저는 약 7개월 동안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탐독하기 시작하면서 총관리 직원들의 권고의 말씀들이 매우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 교회 잡지와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간증이 매우 강해져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크리스티노 로드리게스
이슬라 파트롤라
우루과이

모니카 미즈니코브스키
독일 드레스덴 스테이크
안나베르크-부호홀프 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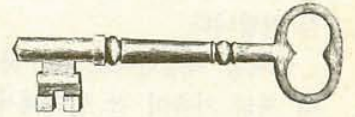
신앙의 열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오래 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저는 신권 계보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아 스테이크 및 선교부를 방문해서, 교회 회원들에게 성스러우면서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이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주요 임무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기록을 찾아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업을 행할 책임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거나, 80세가 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계보 학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회 회원들이 깨닫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가족 역사 탐구는 몇몇 선정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교회의 일반 회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 가졌던 일련의 모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가족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회원들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점차로 더욱더 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없었던 일을 하지요. 당신들에게 이 열쇠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저의 조상 중 일부는 성씨에 큰 문제가 있는 스웨덴 출신이고 일부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일부는 잉글랜드 출신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도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스웨덴 혈통을 따르면, 저의 할아버지의 성함은 넬스 몬슨이고, 증조부님의 성함은 몬슨이 아니라 몬스 오케슨이며, 고조부님의 성함은 오크페데르슨이고 5대 조 할아버님은 다시 몬슨으로 돌아가 피터 몬슨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6대조 할아버님의 성함은 몬스 루스티크로서, 이 성함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피터슨 가, 존슨 가 및 몬슨 가 등을 서로 구별시키기 위한 스웨덴 군대 식 성입니다.

이처럼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친쪽 계보에 관해 저의 가족이 잘 협력해서 그 기록을 성공적으로 얻은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쪽의 조상인 콘디와 왓슨 계보 역시 이와 비슷하게 성공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몬슨 자매와 함께 스웨덴을 방문해서, 제 아내의 부친이 그분의 부모님 및 열한 분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사셨던 방 두 칸짜리 조그만 농가를 찾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증조부께서 이 소중한 가족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시 그 선교사들이 벽난로 앞에 앉아서 낮은 음식을 먹고, 친절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의심의 눈총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늘의 빛을 받아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종하게 되길 기도하는 모습들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을 방문할 당시 제 아내의 사촌인 레이드 에이치 존슨 형제가 스웨덴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와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다가 큰 루터 교회 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존슨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48년에 저와 제 동반자인 리처드 팀슨 장로가 선교 사업을 끝마칠 때 이 도시에 와서 겪었던 경험에



피터 몬슨의 묘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보기에는 덩굴 속에 양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전을 통해 보면, 신앙의 열쇠는 우리가 소망하는 필요한 축복을 얻는 데 선행되는 필수 조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대해 들으시면 흥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존슨 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역사가 이곳에서 기록되어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도시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큰 건물로 들어와서 이곳 고문서 관리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를 매우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막 마치고 나서 며칠간 시간을 내서 그분이 이 교회내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찾아보려고 왔다고 말하자, 그분은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록을 보도록 허락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으며 물문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그 기록들이 자물쇠로 잠겨진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저장실을 여는 큰 열쇠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일과 내 미래와 내 가족의 생계가 이 열쇠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안됐지만, 당신들에게 그 기록을 보여 줄 수가 없군요. 하지만 교회 내부를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안내해 드리죠. 건물 구조와 건물 외곽을 둘러 싸고 있는 묘지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만은 안됩니다. 그것들은 성스러운 것들이니까요.’”

존슨 부장은 그들이 매우 실망했었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고문서 관리인에게 “선생님의 친절한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회회를 둘러보는 동안 존슨 부장과 그의 동반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관리인의 마음이 변해서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묘지와 교회 건물 외부를 둘러보고 난 뒤 예기치 않게 그 고문서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없었던 일을 하지요.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당신들에게 15분 동안 이 열쇠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존슨 부장은 속으로, **15분이라니! 자물쇠를 여는 데도 15분은 걸리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관리인은 그들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물쇠를 풀고 그들의 소중한 계보가 들어 있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오 분 후에 관리인이 와서는 두 사람이 찾은 기록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더 계실려구요?”라고 물으면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삼 일간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웬지는 모르지만 당신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여기에 열쇠가 있으니 보관하시고 일을 마치면 나에게 돌려주세요. 나는 매일 아침 여덟시부터 저녁 다섯시까지 이곳에 있을 것이요.”

이 두 선교사들은 삼 일 동안 꼬박 기록을 찾아 베끼는 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소

중한 기록을 얻어 지금 우리가 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존슨 부장은 감격에 젖은 채로 우리에게 그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의 경험이 몬슨 자매와 저의 삶에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두 사람이 얻은 기록 속에는 우리 가계에 관한 것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문서 관리인이 두 선교사에게 건네 주었던 열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열쇠가 잠긴 문을 열어 두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인 성명들을 드러내 주었듯이, 세상에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열쇠, 우리가 간절히 얻고자 하는 지식의 보고를 잠근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신앙의 열쇠**입니다. 이 사업에서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자물쇠도 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보고를 여는 데 필요한 성스러운 열쇠를 주실 것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서 12:6~22 참조)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신권 계보 위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에게 선교 사업이 영의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 가는 것을 이 지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이 퍼져 나가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이러한 진리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되었으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가버린 자들에게도 이미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이람 스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감 영도, 예언자 요셉의 지도하에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실한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429쪽)

스미스 대관장님은 1916년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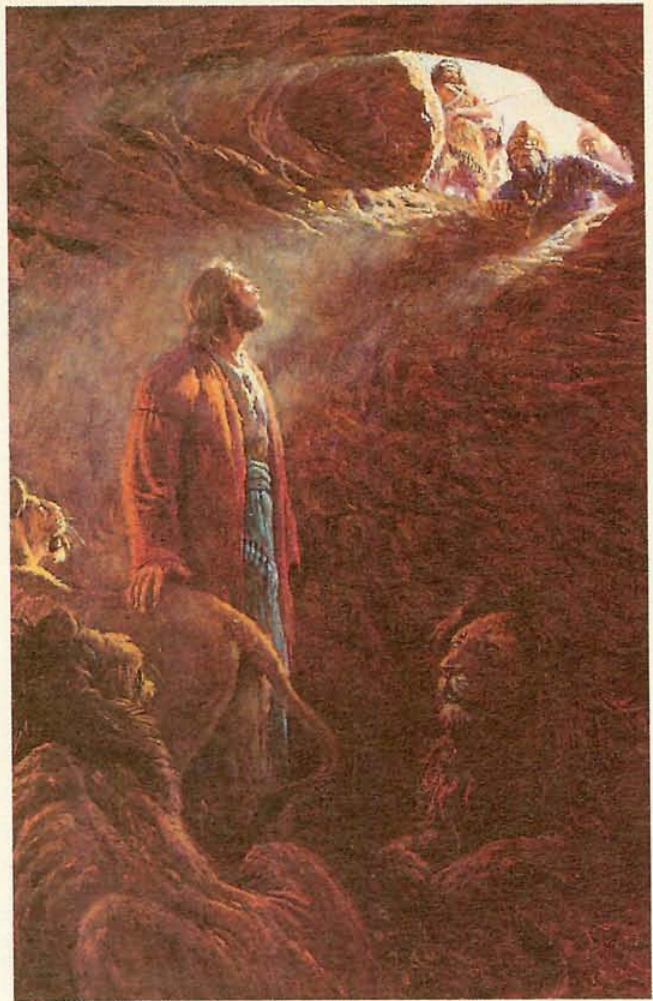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속박의 사슬이 풀릴 것이며, 그들을 감싸고 있는 암흑이 사라질 것이며,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그들은 지상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해 행하는 사업의 소리를 영의 세계에서 듣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그들은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427쪽)

저는 이 의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부름에 응해 임무를 성취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 역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성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저는 하나의 성명을 밝히는 데 드는 노고와, 그에 따르는 경비와 그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력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스러운 의식을 행해 주고 있는 당사자들도 우리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 나갈 때, 우리 앞에 기이한 방법으로 뚜렷한 길이 열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 동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당시, 그곳에는 우리 지방부의 계보 위원회 서기로 봉사하고 있던 한 훌륭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주어진 임무를 위해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여성은 그 지역에서 행해진 계보 탐구의 대부분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뚫을 수 없을 듯한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분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시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열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구체적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온타리오주 벨리빌시의 중심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고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을



102년 전의 그림: 덴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을 때, 사자들의 강한 턱을 묶을 재갈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기 전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살펴보던 중 맨 윗칸에 놓여 있는 두 권짜리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책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원의 도움을 얻어 책을 받아 보니 표지에 *퀸테 베이의 개척자들의 생활*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으며, 전 2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장부터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권의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 역사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녀를 좌절감에 빠지게 하였던 비밀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몹시 흥분이 되어서 가격을 물어 보았으나, 곧 그 흥분된 마음은 의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점원은 “그 책은 귀한 거라 두 권에 2백 달러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부 장로 정원회에서 가치를 확인한 후 그 두 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나중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계보

자료 보관소로 보내져서,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고 헨리 디 모일리 부대관장님의 잃어버린 조상들에 관한 기록을 찾는 데 열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조상 중에는 온타리오주 벨리빌시 근처의 쿼테 베이에 살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야고보서 1:6 참조)을 지닌 한 사랑스런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축복이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의 서한은 구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5~6)

만일 어떤 장애든지 부딪치게 될 경우, 우리는 성신의 동반을 간구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성신이 임할 것이며 그 길은 열릴 것이며 열쇠를 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오래 전,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가 통가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그 땅에 성전이 건립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로버그 장로가 한번은 뉴질랜드 성전에서 막 돌아오는 40명의 교회 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회원들은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 수년 동안 검소하게 생활하며 저축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그로버그 부장이 자신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 여행을 한 것을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기분이 들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면서 모두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버그 부장님, 우리가 성취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여행을 했고 오래 참아 왔으며, 여러분이 의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통가 사람들의 성명이 얼마나 있던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조상이었나요?”

그로버그 부장이 부드럽고도 유창한 통가어로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한두 가족의 이름이 있었다 해도 그들이 뉴질랜드 성전에서 행한 의식은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솔트레이크 성전이나 로간 성전 또는 그 어떤 성전에서도 행할 수 있는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버그 부장이 그들에게 돌아가신 그들의 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한 시간 가량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영원에 관한 시현이 열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통가 섬에서는 가족 역사 탐구에 대한 강한 열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가족 역사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그 이후로 그들의 수많은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그로버그 부장이 받은 영감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나 지금은 천국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승영을 위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즉 자신들을 묶고 있는 시슬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사람들의 탄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행을 하기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신의 공헌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준비하고 충실히 탐구한 후 의식을 수행해서, 이들 영혼들이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면, 이 사업의 전진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 주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신앙의 시험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소망하는 축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경우, 때가 되면 마치 아침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이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경전을 통해 보면, 신앙의 열쇠는 우리가 소망하고 필요로 하는 축복을 얻는 데 선행되는 필수 조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기꺼이 희생하려 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세기 22:12). 아브라함의 신앙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기 전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세 명의 히브리인 소년들은 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 신앙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조용한 숲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보기에는 덩불 속에 양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을 때, 사자들의 강한 턱을 묶을 재갈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명의 히브리인 소년들이 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때, 그들에게 방화복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년 예언자인 요셉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을 때, 그의 신앙이 시험받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의 능력 앞에 열리지 않을 문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는 신앙이 선행 요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자물쇠를 열어 줄 열쇠는 우리가 손을 뻗으면 잡힐 곳에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에는 1832년 2월 16일, 오하이오 주 하이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어진 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에는 주님께서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가 하시는 일의 한계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다.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 연륜은 결코 다함이 없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도다.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 주리니,”(교리와 성약 76:1~7)

신앙의 열쇠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열쇠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갖게 될 기회에 관한 위대한 시현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
2.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성명을 찾아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을 받아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3. 조상들의 성명을 밝히는 열쇠는 주님께서 성스러운 사업을 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
4. 이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체계를 세워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5. 어려움을 당할 때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구한다.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



카산드라 린 트사이

내가 대만, 타이페이의 독신 성인 반을 위한 두 명의 주일학교 교사 중 하나로 성별될 때 우리 감독님은 나에게 성신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때 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지를 깨닫지 못했다.

반원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웠다. 함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가 한 주를 가르치면 그 다음 주는 내

가 가르쳤다. 나는 열심히 공과를 준비했으며, 사람들은 내게 공과가 아주 훌륭하다고 말해 주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날 공과를 가르쳐야 할 동료 교사가 보이질 않았다. 나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달려갔다.

그녀는 졸리운 목소리로 “미안해요. 지금 몇 시죠? 늦잠을 자버렸나 봐요.”라고 말했다. 공과는 이미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그녀는 그때까지



摩門經

摩門教之第一經

자고 있었다.

내가 교실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 고 있는데, 스테이크 부장님이 미소로 인사하면서, “아내와 함께 오늘 자매님의 공과를 듣고 싶군요.”라고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약간 끄덕였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날 공과는 니파이삼서 15장부터 19장까지인데, 나는 온통 그 공과에만 생각이 쏠려 있었다.

반원들로 가득 찬 교실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공과 시간이 7분이나 흐른 뒤였다. 반장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플론경을 펼쳤다. 나는 반원들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 밖에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성구들을 읽기 시작할 때, 나는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이 토론할 적절한 구절들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느꼈다. 주님께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나팔 소리같이 입을 열어 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저에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24:12)고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 혀가 풀렸다.

내 인생에서 그토록 겸손함을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영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마치 내가 주님의 악기가 되어 그분께서 나를 통해 교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너무나 압도되어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기쁨에 차서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니파이삼서 17:20~21)라고 하신 아주 감동적인 부분을 반원들과 함께 읽었다. 교실안이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우리가 읽은 그 기사는 나에게 있어서 말 이상의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구세주와 그분을 둘러싼 충실한 제자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세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 역시 그분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을 위해 “그 믿음이 장하여... 저들을 내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어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저들 가운데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니파이삼서 19:29)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에 이르렀다. 나는 반원들에게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구세주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놀라운 경험은 우리 감독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커다란 사랑을 지니고 계시며, 영은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관리하는 분들의 권고에 따른다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

반원들에게 그 성구들을
읽어 주기 시작할 때 내
혀가 풀렸다. 나는 내가
아니라 영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았다.



노력의 예술

자넷 토마스

그림: 브래드 치다스터, 사진 촬영: 윌던 앤더슨



스탠 치더스터의 거실에 들어가면, 우선 그 방의 벽들이 온통 인상주의 기법의 수채화의 극적인 추상화와 복잡하게 만들어진 합성화와 같은 그림들로 덮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스탠이 그러한 아름다운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휠체어를 타고 방안을 돌아다니는 깡마른 젊은이인 스탠의 동생 브래드가 화가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유타주, 샌디에 살고 있는 브래드 치더스터는 근위축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서 보낸다. 그는 어릴 때 유타주에서 근위축증 치료를 위한 기금 조성 포스터의 모델이 된 적도 있다. 그의 예술적인 재능은 어릴 때부터 눈에 띄었다. 다른 많은 어린 소년들처럼 브래드도 자동차를 좋아했다. 그는 항상 낙서를 했으며 바퀴달린 차는 그가 가장 즐겨 그리는 대상이었다.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친구들도 얻게 해주었다. 브래드는 열 한 살 때 텔레비전을 통해 자동차 경주를 시청하고 있던 중 차가 충돌해서 트랙 가장자리에서 불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심하게 다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경주팀의 매니저인 데릭 워커였다.

“그때 저는 문병 카드로 경주용 차를 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에게 보냈는데 그 후 그는 저에게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내 왔죠. 우리는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어요.”라고 브래드는 말한다. 그 단순한 편지 왕래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었다. 그때부터 워커와 또 다른 자동차 경주 친구인 로저 펜스크는 해마다 메이저 레이스에 비행기로 브래드를 초대해 주었다.

브래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 선생님 중 한분이 그에게 수채화 물감을 소개해 주었다. 그것은 브래드가 가장 좋아하는 착색제가 되었다. 그는 “저는 수채화 물감이 너무 좋아서 그것만 계속 사용했어요. 당시에 장관 중 한 분이 제 풍경화 한 점을 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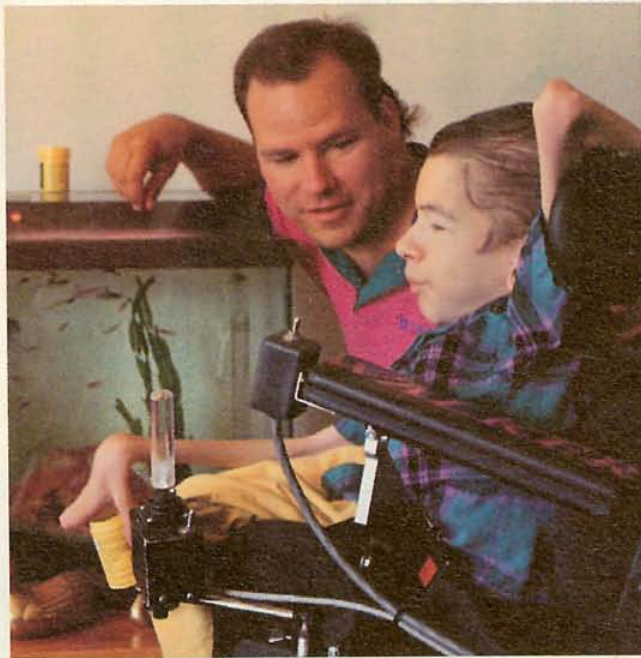
저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저도 조금의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라고 말했다.

브래드는 시각 예술 부문에서 유타 스텔링 장학금(고등학교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지역 대학에서 그래픽 예술에 대한 몇 가지 강의를 듣고 있으며, 그의 작품이 화랑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발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예술가이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브래드와 가족은 그에게 흥미를 끄는 생각이나 사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어디로 가든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 그는 예술가로서 자신에게 흥미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진을 찍게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관심 분야를 계속 넓혀 왔다. 그는 한동안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 해에 걸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관심의 영역을 넓혀 왔다. 브래드는 “저는 추상 미술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본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추상 미술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됐어요.”라고 말한다.

브래드는 세 형과 아버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도움

을 받는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브래드는 가족이 그를 위해 해주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변화를 피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더 자립하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다. 브래드는 그런 정신으로 성전에도 가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

브래드는 재능있는 예술가이지만 거절당한 경험도 많다. 그는 “여러 화랑으로부터 제 작품을 전시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저를 지치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해요.”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 전진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는 해마다 근위축증 협회에 자신의 그림을 경매하도록 기증하여 그들이 그 돈을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브래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는 비결을 발견했음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가 노력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구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충고를 실천해 왔다. 그는 참된 예술가이다.

브래드가 도움에 관해 해준 말

브래드는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일과 상처를 주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의 제언은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어떤 아이들은 제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를 피하곤 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알고 노력하는 게 더 좋았어요.”

2. “어떤 사람들은 저를 가엾게 여기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통 사람처럼 대해 주는 게 더 좋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지나치게 하지도 마세요.”

3. “아이들이 제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것을 막으면 저는 짜증이 났어요. 어린 아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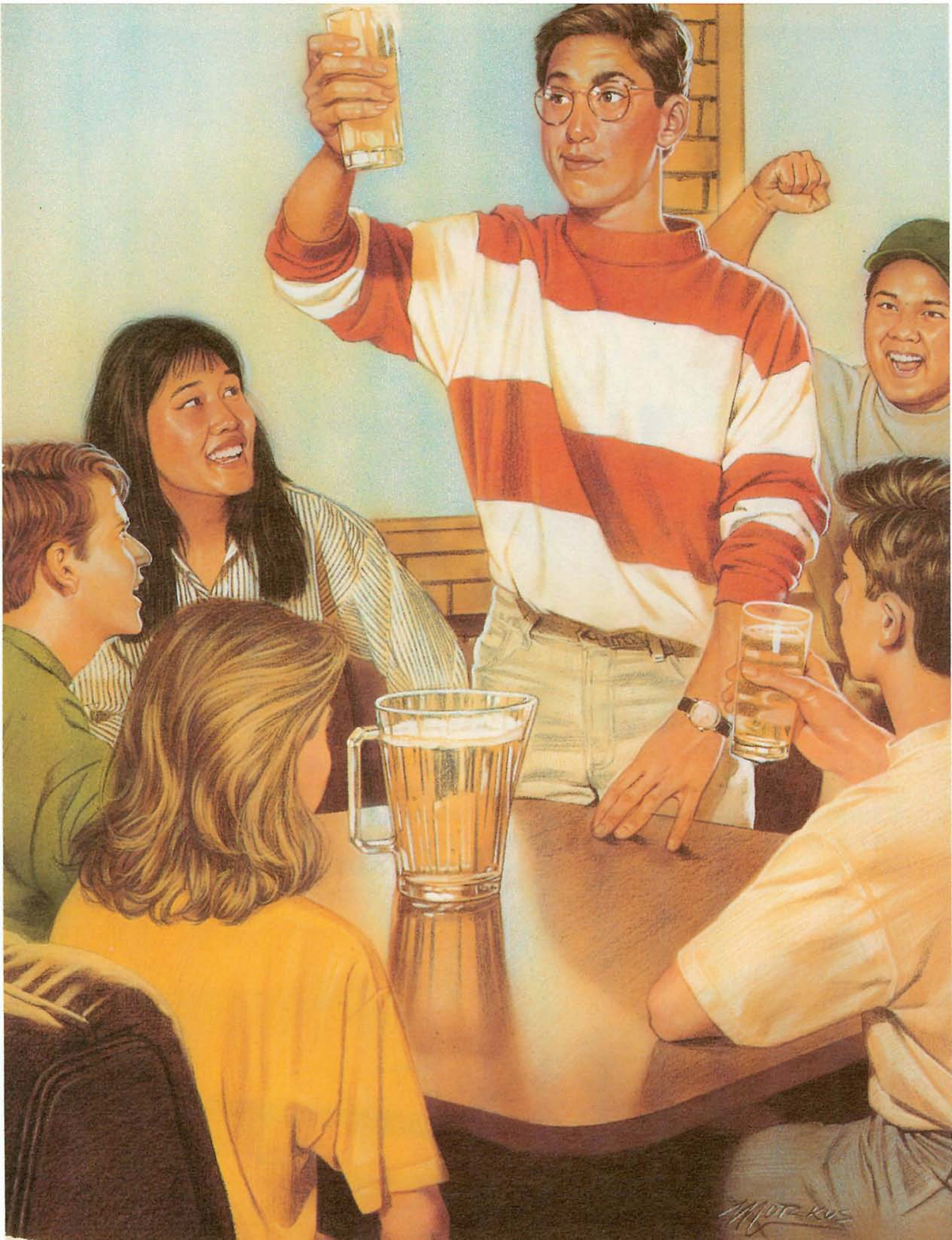
특별해요.”

4. “저는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야말로 장애자들 주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물어 보세요.”

□

브래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는 비결을 발견했으며 그의 작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는 또한 근위축증 협회에 그림을 기증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맞은편 쪽:형 스텐과 함께 한 브래드.**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필 레쉬카

그것은 거의 의식에 가까웠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풋볼 게임이 끝나면 나의 낡은 녹색 자동차에 올라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언제나 붐볐는데 특히 이긴 날에는 더욱 그랬다. 우리가 경쟁 학교 팀에 이긴 그날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풋볼팀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구석지에 간신히 자리를 잡아 놓고 형인 데이브를 찾기 시작했다.

형은 언제나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형의 원만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모여들었다. 콜로라도에 살았던 그 짧은 기간에도 형은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형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형은 종종 나를 자신과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붙여 주었다. 특히 내가 형보다 더 몸집이 크게 자란 뒤에는 더욱 그랬다. 나는 “데이브의 몸집 큰 동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나는 마침내 피자집 중앙에 가까운 테이블에 있는 형을 발견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다. “어이, 제군들. 오늘은 데이브의 열 여덟번째 생일이야. 오늘부터 성인이라고.”

“맞아. 이제 법적인 성인이야.”라고 누군가가 덧붙였다. 당시 콜로라도주의 법은 열 여덟 살이 되면 법적으로 맥주를 사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학교의 소수의 물몬들에게는 열 여덟 살이 된다는 것이 그저 또 다른 생일일 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법적인 성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형이 앉아 있는 테이블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으며, 이내 모두가 떠들썩하게 생일 축하를 부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데이브, 눈 감아.”라고 외쳤다. 큰 유리잔에 담긴, 거품이 이는 황금빛 맥주가 사람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통해 앞으로 전달되어 데이브의 손에 떠맡겨졌다. 피자집 전체에서 떠들썩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구석에 떨어져서 형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하며 지켜 보았다. 형은 항상 나의 모범이었다. 형은 언제나 충실했다. 물론 이전에 형이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형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죽 둘러보는 것을 지켜 보았다. 구석진 뒤쪽에서 내가 자기를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참으로 지루한 한 순간이 흐른 후 마침내 형은 일어섰다. 형은 맥주잔을 집어 들고 그것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형도 그럴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피자집 안은 곧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생일을 축하해 주어서 고맙다.” 형은 들어 올린 잔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것 말고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해줄 수 있잖아. 어쨌든 고마워.” 데이브가 잔을 내려놓고 앉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투덜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물몬들은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고 중얼거렸다.

나중에 나는 형 곁으로 가서, 우리는 상쾌한 가을 공기를 헤치고 내 차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형, 아까 잠시 형이 압력에 굴복해서 어리석은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어.”하고 말했다.

형은 어깨를 으쓱거리고선 “오늘밤에 어떤 결심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떤 큰 압박감도 없었어. 이미 오래 전에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했거든. 그것이 훨씬 마음 편한 방법이야.”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빙긋이 웃기만 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나는 데이브의 몸집 큰 동생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자랑스러웠다. □



청소년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도록 도와줌

조이 샌더스 런던버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자녀에게 도덕적인 순결을 가르치는 데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실제로 사회는 일반적으로 부도덕을 매력적인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대중 매체들이 우리를 미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도덕의 보루가 존재한다. 수많은 부모들이 주변의 악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부도덕에 대항하고 다른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항하도록 가르쳐야 할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성적인 도덕에 관해 많은 부모와 감독 및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녀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비슷한 양식을 따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섯 가지 지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녀들은 그들의 신체가 신성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또한 자신의 출산 능력을 보호하고 더럽히지 않는 일이 매우 성스러운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솔직하고 따뜻하게 가르침

최초의 지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 성에 관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신체의 기본적인 성 기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이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처음으로 자녀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 후 “휴, 겨우 끝냈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가르치며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신체가 신성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또한 자신의 출산 능력을 보호하고 더럽히지 않는 일이 매우 성스러운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생활했던 한 젊은이는 내게 “저의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에 관해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생물학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적절한 성 역할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저는 항상 어떠한 문제라도 부모님께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을 얻기 위해 두 분께 가곤 했어요.” 보통으로 자녀가



먼저 상세한 문제에 관해 말을 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부모는 자녀가 물어 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낚시하러 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둘이서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느 사려깊은 어머니는 가끔씩 돌아가며 침대의 딸들과 둘이서만 점심 식사를 함으로써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대부분 가족이 함께 집안

일을 하거나 정기적인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어떤 부모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은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 몹시 걱정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그러한 교육이 오히려 비극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성에 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에서 발행한 부모 지도서를 살펴볼 수도 있다.

보통으로 자녀가 먼저 상세한 문제에 관해 말을 꺼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부모는 자녀가 물어 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도와줄 수 있다. 대부분의 기회는 가족이 함께 집안 일을 하거나 정기적인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진다.

도덕에 관한 교회 교리를 가르침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순결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에 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려 주셨다. 그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란 소책자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주님이 특히 금하신 행위에는 결혼 전의 모든 성관계, 애무, 성도착(동성 연애, 강간, 근친상간 등), 자위 행위, 기타 생각과 연행이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16쪽) 우리는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영을 지니지 못한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른 흐름으로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십대들이 에스라 대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죄의 범주에 있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탕이나 결혼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더 무거운 죄인 간음과 같은 부정한 성관계보다 더 큰 죄는 오직 살인과 성신을 부인하는 죄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결은 결코 진부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에 벤슨 대관장님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은 젊은이들이 감히 담배는 피우지 못하면서 자유롭게 관능적인 애무를 하도록 만듭니다. 두 가지가 다 나쁘지만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에즈라 대프트 벤슨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8년, 279, 281쪽)라고 말씀하셨다.

효과적인 가르침이 주어진다면 한 젊은이가 내게 얘기해 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젊은이의 직장에서 일했던 어떤 말일성도 자매는 앞으로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자신의 남자 친구와 자신이 이따금씩 부도덕한 행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직장 동료는 그녀에게 그 남자 친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냐, 나갈 수 있어. 우린 틀림없이 회개할거니까.”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종류의 성적인 범법을 저지르고 나서, 계획적으로 고백을 하고, 즉흥적으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주께서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일이 아[님]”(에즈라 대프트 벤슨,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9쪽)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성적인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최소한 일 년에서 삼 년 정도 연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용서 역시 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회개는 죄에 대해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깊은 후회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하나님, 가족, 국가: 우리의 세 가지 큰 충성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96쪽)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가르침

자녀들은 그들의 성적인 감정이 타고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러한 감정의 표현을 자제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위대한 자유의지의 은사에 대한 축복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니파이이서 10:23)

누가 영생을 두고 영원한 죽음을 택하겠는가? 선택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이 그럴 것이다. 텍사스의 어느 감독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간단한 결정조차도 스스로 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복이나 머리 모양 또는 취미 등을 선택하도록 허락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결과가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부모는 청소년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선택하는 일에 대해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자녀들의 도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도와준다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 주는 것은 가정을 머물고 싶은 장소로 만든다. 부모가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 줄 때 자녀는 도덕적인 깨끗함의 축복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긍정적인 면에 관해서도 배우게 된다.

면, 그들은 좋은 친구와 합당한 음악, 영화 및 기타 다른 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1991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지침에 관해 말씀했다. 그는 우리가 “구세주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회를 생활의 중심에 두”고 “반드시 이 표준에 맞추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33쪽 참조)

어느 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것처럼 훌륭하게 키웠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자녀들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칠 기회로 여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거라고 생각하니?”라는 식으로 질문했다. 그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며 자녀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키워 주면서 참을성 있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는 설교로써 결말을 맺으려는 충동을 억제하면서 이야기와 모범과 비유를 통하여 자녀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벤슨 대관장님은 “지금 생활에서 여러분의 미덕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9쪽)라고 말씀하셨다.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다음 비유를 사용하곤 했다. 어두운 거리를 밤에 혼자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 보니, 낮은 사람이 뒤에서 칼을 쳐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청소년들은 보통으로 “은 힘을 다해 도망갈거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아, 조금쯤 쪼려도 다치진 않을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꾸물거린다는 뜻이 아니죠?”라고 묻는다. 청소년들은 그 어리석은 물음에 소리를 높여 웃는다. 그러면 나는 벤슨 대관장님의 말씀을 되풀이한다. “지금 생활에서 여러분의 미덕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이러한 교수법은 “만일 ...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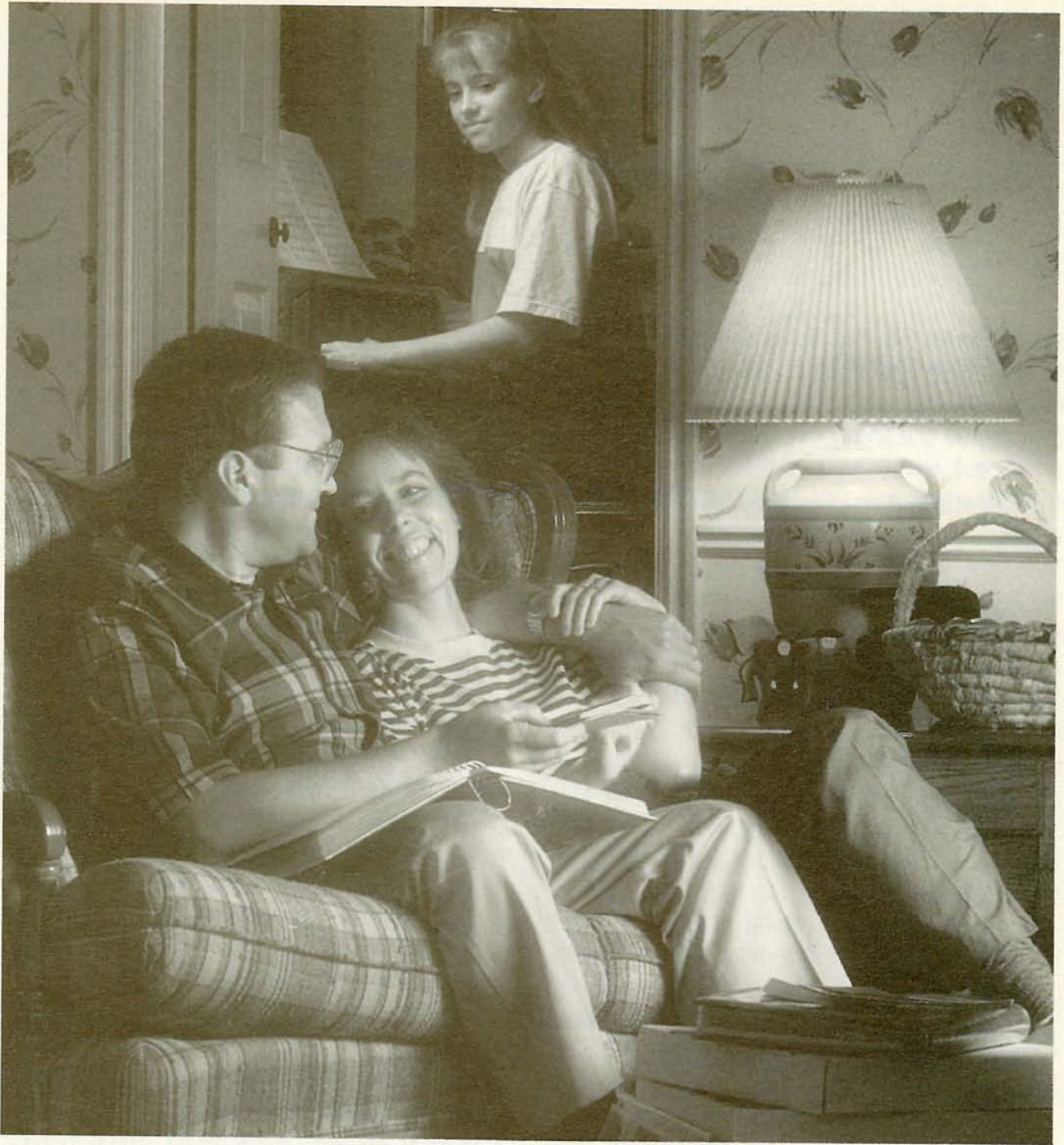
겁주지 않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어느 가정의 부모는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만일 너희 친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답한다.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결혼 및 가족 관계 전문가인 남편 게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 대해 귀중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종종 부모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들어주는 것은 자녀들이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러한 가운데 나 역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기운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슨 일이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짐[실제 이름이 아님]은 굉장한 바보예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오, 왜 그렇지?”라고 물었다가 “짐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 학교를 마치면 자기 여자 친구를 계속 집으로 부르고 있어요.”라는 대답에 깜짝 놀랐다. 나는 도덕에 관해 좋은 설교를 시작하려는 유혹을 억제하면서 계속 들었다. 그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짐은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구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과 너무 유사했으며, 오히려 더 간결했다. 나는 “무슨 뜻이지?”라고 물었다. 그러자 집에 여자 친구와 단 둘이 있는 것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 관한 이야기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성병과 낙태의 무서운 영향을 포함하여 그 문제에 따르는 모든 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저 듣고 동의하기만 하였다. 만일 내가 그 설교를 했더라면 아들은 분명히 조금밖에 듣지 않았을 것이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줄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저는 제가 염려하는 문제에 관한 뉴스 기사를 토론한다면 그것



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쉽사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과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죠. 아이들은 제가 설교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녀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특별히 그것을 요구받지 않았을 때 더욱 그렇게 하고 싶은 십대의 강박 관념”(레이 과렌디, “아이들이 듣는 이유”,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1년 1월호, 120쪽)

을 계산에 넣었을 뿐이었다. 만일 그것이 신문에 나온 것이라면, 개인적인 의견란에 실린 것일지라도 그 결과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자녀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도록 도와줍
.....**

청남 청년들은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그들이 성적인

순결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이었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한 청년에게 어떻게 그 간증을 얻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저는 교회가 제 부모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어요. 그분들이 제게 영적인 경험을 전할 때 저는 부모님의 눈에서 간증때문에 우러나오는 눈물을 보아 왔어요.”라고 말했다.

선교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떤 청년은 내게 자신은 경전, 특히 골몬경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함께 경전을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에 관해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구세주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저도 점차로 혼자서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생활에서 보았던 그런 기쁨을 제 생활에서도 갖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구세주에 대한 간증이 커짐에 따라 저는 결코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청년은 내게 “저는 계속 유혹에 견디도록 기도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가까이 느꼈어요. 저는 그분께 무엇이랄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러한 간증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자라면서 부모님을 지켜 보고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죠.”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자녀가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간증이 계속 커져야 하며 또 자녀와 함께 꾸준히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부모가 책임감 있게 신앙을 갖고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녀가 간증을 갖게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가정에서 행복한 환경을 조성함

우리는 가정 생활을 즐길 필요가 있다. 십대의 자녀들을 둔 어느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그 아이들이 도덕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아내와 저는 선하게 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무엇이든 즐겁게 행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죠.”

우리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으로 세상이 끝났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의 아들은 십대일 때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아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죠. 아들은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웠고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 주는 것은 가정을 머물고 싶은 장소로 만든다. 나는 부모님이 수없이 안아 주고 정기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을 들으며 자랐던 것을 기억한다. 나의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십대일 때 그분이 나를 안고 “그 옷을 입으니 너무 귀여워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었을 때의 행복한 느낌을 오늘날까지 기억한다. 우리가 지닌 문제에도 불구하고 밝은 인생관을 갖게 되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신앙과 기쁨에 찬 표정으로 자녀들을 말할 수 없이 축복해 주었던 독신 부모인 한 친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상황을 좋게 변화시키거든.”이라고 말한다.

위스콘신의 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누리고 있는 가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압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부모들이 항상 자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 줍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갖는 방법을 알며,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으로써 영을 통해 인도를 받아 자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 기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

침례의 축복을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1854년 어느 봄날 이른 아침, 여덟 살 난 마가렛 맥닐 벨라드는 침례를 받으러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먼 훗날 그녀는 자신의 침례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물속에서 일어섰을 때, 막 날이 새기 시작하여 동쪽 산 위로 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정말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 당시 하늘에서 온 영이 나를 포근히 감쌌으며, 그 느낌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다.”(앤사인, 1989년 7월호, 16쪽)

우리의 인생에 빛을 주며, 선으로 인도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힘은 침례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침례를 탄생에 비유하고 있다.(요한복음 3:5 참조). 탄생으로 비유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침례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케 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사도행전 22:16) 아나니아는 곧 사도 바울이라 일컬어지게 될 다소 시람 사울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는 침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교리와 성약 20:37 참조)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상징적으로 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갓 태



그림: 크리스티 모리스

어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물 속에서 나오게 된다. 깨끗하게 되는 것에 관해 성인이 되어 침례를 받았던 한국의 문복자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죄가 사라지고 저의 영혼에 빛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상의 유희와 불안한 느낌들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아이렌 에릭슨 자매는 20대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느낌과 더불어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범한 죄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러한 고통이 싹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한다면, 침례를 여덟 살에 받건 또는 여든 살에 받건 나이에 관계없이 죄로부터

깨끗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자신이 맺은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이러한 깨끗케 되는 병고침의 결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죄의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또한 침례를 통해 생활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가?

침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줍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는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며, 또한 많은 경우 친형제와 자매들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를 통해 “물로써 태어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형제들과 자매들을 얻어 가족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침례를 받을 당시 저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에릭슨 자매는 회상한다. “저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랑이 가득한 가족에 속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에릭슨 자매의 경우 그녀가 침례를 받을 당시에 속했던 워드에는 훌륭한 가족이 지녀야 할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훌륭한 모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결심이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워드 회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

한 밤 중 의 평 안

안나 모라 몬테레이

안나, 안나, 빨리 일어나!” 다급한 목소리로 인해 잠을 깬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밖에서 형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서둘러! 사고가 났어, 언니가 병원으로 실려 갔어!”

때는 1977년이였다. 불과 사 년 전에 코스타리카를 떠난 나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엔젤리스에 살고 있었다. 언니는 가족들과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계단을 뛰어올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커다란 병실들을 찾아다녔다. 우리가 병실문을 열자 거기에는 의식을 잃은 언니의 육신이 의사들과 의료장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간호사가 우리를 보더니 밖으로

내보냈다. 시간이 재깍재깍 흐르는 동안 우리는 차거운 병원 복도에서 초조한 마음을 간직한 채 밤새도록 기다렸다. 나중에 의사를 만났을 때 그가 내린 진단은 비관적인 것이었다.

차거운 의자에 앉아 있던 나는 신권의 권세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비록 언니가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나는 언니가 축복을 받도록 해주고 싶었다. 나는 감독님에게 전화를 걸어 감독님이 언니를 위해 그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감독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였을 때, 나의 마음은 감사함 뿐이었다. 나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에, 감독님이 도착하여 언니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감독님은 나에게도 축복을 주었다.

나는 감독님이 “주님께서는 그대의 언니가 꼭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나는 언니가 이 지상에 꼭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언니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언니는 세상을 떠났다. 주님께서는 언니를 그분의 처소로 데려가셨다.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어려웠던 시간 동안에 내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언니가 죽은 지 꼭 일 년이 되었을 때, 나는 성전에서 언니를 위해 대리 사업을 행하였다. 나는 신권의 권세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없이 믿고 있다. □





그림 더그 파란

대화의 소재



이것을 그치는 방법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불친
절한 말이 명예를 훼손하며,
서로의 관계에 해를 미치고,
생의 진로까지도 변하게 할
수 있다. 협담을 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떠한 대화 내용이 협담이 되고
어떠한 대화 내용이 협담이 아닌
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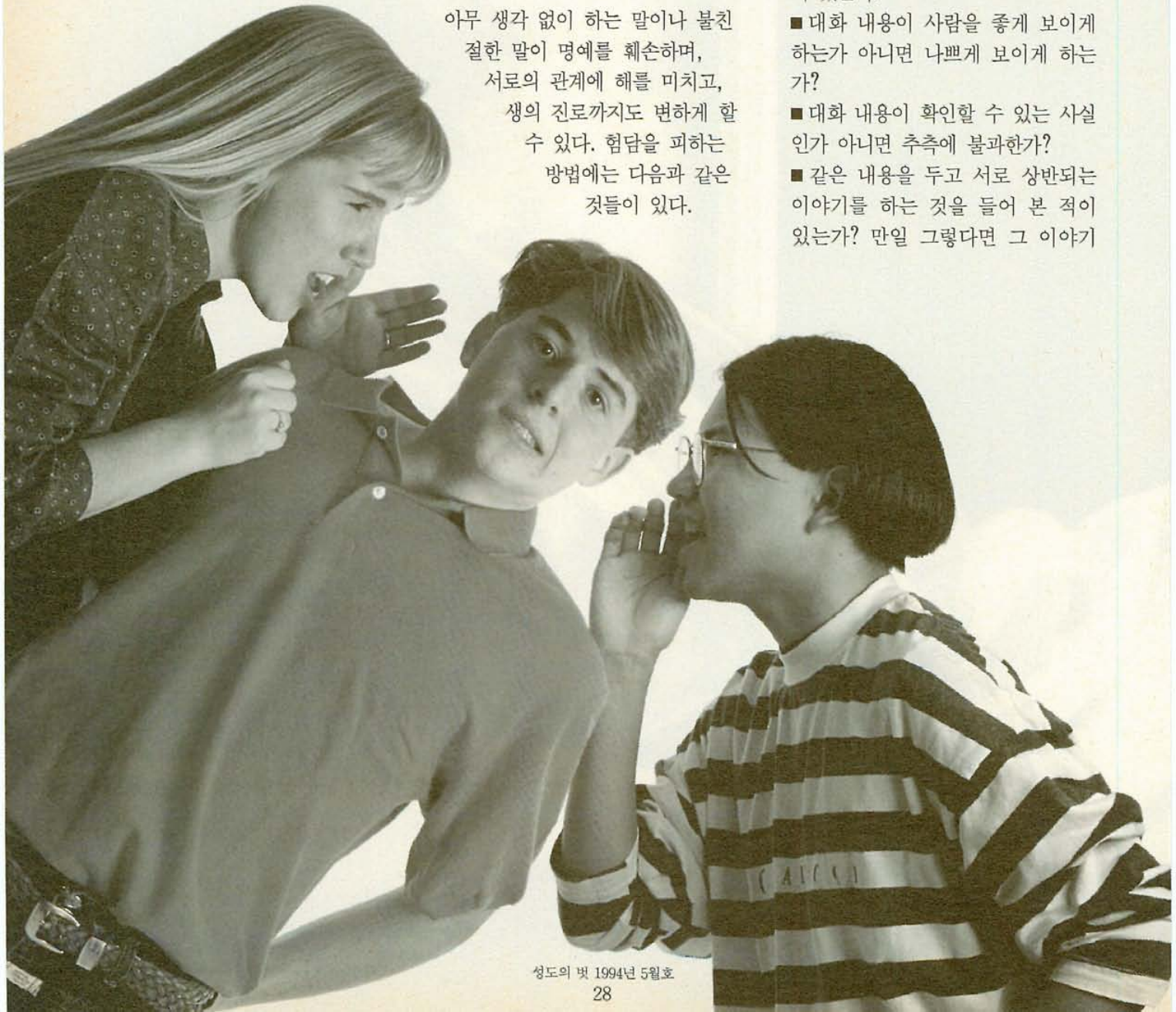
■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대해 하고
있는 말을 그 당사자에게 들려줘도
마음에 꺼릴 것이 없는가?

■ 대화 내용이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사실보다 과장되고 악의적인 내용들
이 있는가?

■ 대화 내용이 사람을 좋게 보이게
하는가 아니면 나쁘게 보이게 하는
가?

■ 대화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인가 아니면 추측에 불과한가?

■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야기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 그러한 정보를 주는 사람의 동기는 무엇인가?

■ 험담을 들은 후, 여러분의 느낌이 강화되는가 아니면 나빠지는가?

험담이 돌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더욱 신뢰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에 관해 좋지 않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험담을 시작하려 할 때,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 대화를 바꾸지는 않되 긍정적인 면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람의 그러한 성품을 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항상 내게 친절했었는데” 등과 같은 말을 해준다.

■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

춘다. 예를 들면, “너는 샘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애한테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도 있니?”라고 말한다.

■ 침묵한다. 때때로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효과를 볼 때가 있다. 혼자서 험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정직하게 말한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 하지만 내가 험담을 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 그런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해결책

험담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소문을 퍼뜨린 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본다. 자신에 관해 좋은 느낌이 드는가? 다른 사람에 관해 좋은 말을 할 경우에는 느낌이 어떻겠는가?

■ 신앙개조 제13조와 데살로니가후

서 3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읽는다.

■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험담을 하기도 한다.

■ 다른 활동으로 대처한다. 험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대신 건설적인 일을 하거나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다.

■ 험담을 하는 동기를 찾아본다. 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훌륭하게 보이려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본다. 하나님의 한 자녀에 대해 건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여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은가?

■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한다. 다른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에 관해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여러분에 관해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지 않은가?

독신 성인들이 영동에 모임

한국 각지에서 온 독신 성인들이 지난 여름 영동에 모여 청년 대회를 통해 우정과 신앙을 나누고 더욱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영동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250

킬로미터 떨어진 시골로 이곳에서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워크숍과 세미나 및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과 변하지 않는 참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을 배웠다.



위:대회장인 김종열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매릴 제이 배이트먼 장로와 그의 아내 마릴린.



이러한 청년 대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1976년이였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지방부에서 약 200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번에는 16개의 스테이크와 세 개의 지방부에서 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가했으며, 세 명의 지역 대표 또한 이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새로 임명된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가 이 대회를 감리하고 대회 개최 선언을 했다.

말씀을 전하면서 베이트먼 장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을 장막에 비유한 이사야와 니파이의 시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처음에 말뚝 하나를 단단히 박고 차례로 하나씩, 장막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수의 말뚝을 박아 마지막에는 전세계를 덮는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독신 성인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베이트먼 장로는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할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이러한 집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대회는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결심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31세의 한 형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가 과거에 활동 회원은 아니었지만 이제 감독님을 찾아가 교회에서 부름을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부름은 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조직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몽치기만 한다면 복음을 통해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와드와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와 국가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껏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절에 보답함

캘리포니아, 파로스 베르데스 스테이크 하버 와드의 청소년들은 약 10년 동안이나 국경을 넘어 멕시코의 티우아나 스테이크 회원들을 도와주곤 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수리도 했으며, 또한 예배당을 개축하고 지붕을 덮었으며 조경 공사를 했다. 올해에는 티우아나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이 그간의 친절에 보답을 했다.

이웃간의 낙서 반대 운동의 일환

으로 티우아나의 성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팔로스 베르데스 스테이크 회원들과 함께 한 고등학교 건물을 칠하고 청소했다.

멕시코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주말 여행 여권을 받았다.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에 널려 있는 잡다한 쓰레기를 청소하고 낙서로 인해 훼손된 벽에 칠을 했다. 일이 끝나고 청소년들은 저녁에 함께 모여 여러 문화권의 음식과 여흥을 즐겼다. 티우아나 스테이크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민속 무용과 음악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그곳 회원들의 집에 머물렀으며, 일요일 아침에는 합동 성찬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말일성도의 표본입니다. 그들은 우리 와드를 위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버 와드의 감독인 데이비드 본드의 말이다.





브라질에서의 야영 모임

교회의 많은 지역에서는 청녀들을 위한 야영 모임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몇몇 청녀들의 할머니들까지도 어렸을 적에 야영에 참가한 경험기 있을 것이나 브라질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야영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시작되어 이에 관련된 이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브라질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따랐다.

이 나라에는 세계적인 대도시에 속하는 상파울루시와 리오데자네이로시가 있고 또한 87개의 스테이크에 거의 오십만 명의 회원이 있다. 어떤 소녀들은 아파트 건물에 있는 자신들의 집을 떠나 일반 버스에 캠핑 도구와 몸을 신고 여러 시간을 여행하기도 했다. 신선한 공기와 꽃, 그리고 시골 하늘에 뜬 별들을 도시에서만 자라온 청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였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들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 "우정이 꽃피어 울랐으며, 서로간의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이 돌아오고 간증이 짝을 띄웠습니다."라고 한 지도자는 말한다. 바로 그것이 청녀 야영 모임을 통해 달성하려고 의도한 것이였다.

스페인의 펜싱 챔피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사는 열 다섯살의 수산나 페르난데스 레블로스 헤레도는 챔피언이다. 그녀는 국내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62명의 소녀 검사들과 겨루어 소녀부 우승과 함께 최우수 소녀 검사로 뽑혔다.

그녀의 승리는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과 희생의 결과였다. 열 한 살 때 운동에 자질이 있음을 발견한 그녀는 스페인어판 교회 잡지인 *리아 호나*에서 말일성도 체육인들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에 감명을 받아 그녀는 펜싱 선수권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아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으며, 많은 메달과 컵을 탔다.

수산나는 나이가 어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었으나, 지금 그녀는 다음 올림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이 보낸
미술품 및 기념물

마조리 드래퍼 콘더

주님은 아프리카에 교회가 들어가기 수 년 전부터, 이미 길을 예비하셨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몇몇 서부 아프리카인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배운 후 귀국했으며, 복음을 이미 접한 서부 아프리카인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게 되었다. 이때부터 골몬경에 대한 간증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모였다. 이들은 복음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배우지도 않았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와 더불어 1959년에서 1978년 사이에 몇몇 말일성도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거주하면서 사업계와 교육계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브리감 영 대학교 교수로서 가나 대학교에서 가정 경제학 프로그램 개설을 도와 주고 있던 버지니아 커틀러 교수와 그의 아내 케리 및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사탕수수 농공 단지를 경영하던 바나드 실버 형제가 있었다. 또한 유타주 프로보 출신으로서 현재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가 가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사업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보여 준 우정이 결국에는 교회가 그곳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78년말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8년 7월에 모든 합당한 형제가 신권에 성임될 수 있다는 계시가 주어짐으로써, 아프리카 회원들이 스스로 교회를 꾸려 나가고 충만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첫해 동안 세 쌍의 부부 선교사를 통해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침례를 받았다.

복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라고 칠십인 정원회의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는 말한다.” 그들은 배우기를 갈망하며 이해가 빠르고, 주의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졌고 듣고 반응이 빠르며, 영적으로 민감하고 생명의 물에 목말라 있으며,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7쪽)

1978년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부부 선교사들 수백 명이 이땅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서부 아프리카 출신의 많은 젊은 형제와 자매들 또한 조국과 해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개척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다음은 서부 아프리카의 회원들이 보낸 미술 작품 및 기념물들로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이 개최한 전시회 “준비된 사람들: 서부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 전에 전시된 미술 작품 및 기념물들이다. 이 작품들은 초창기에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이 보여 준 복음에 대한 간증을 표현한 것이다. □

마조리 드래퍼 콘더 장로는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의 전시 기획자이다.

왼쪽:지도력을 상징하는 이 나이지리아의 사탕수수는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에게 기증된 것이다.





아래: 나이지리아 크로스 리버주의 교회 회원들이 이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이 현수막에는 이 나라의 여러 정치적인 구역을 보여 주는 지도가 들어 있다.



위: 교회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용되었던 가나 케이프 코스트의 한 예배당. 시멘트로 만든 모로나이 천사상(아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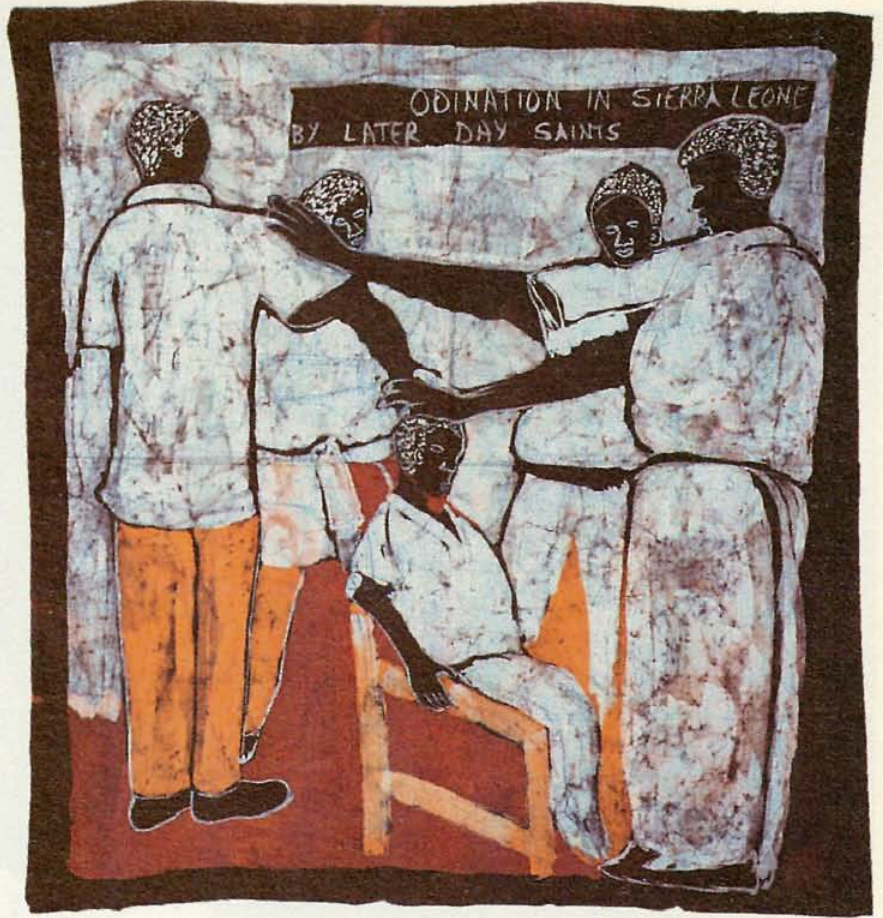


나나 야테 코조 추장은 가나 유신첸 지부의 조셉 코메나 오토 지부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988년 이래 그는 가나에서 두번째로 높은 아산티 추장으로 봉사해 왔다.

1982년에 그는 말일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곧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복음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는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는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았으며 그와 교회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다.

1988년 아산티 추장 회의에서는 그의 훌륭한 개인적인 성실성을 높이 사 추장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오토 지부장은 3일을 금식하고 나서 말일성도 지방부장을 만났다. 그들은 함께 아산티 추장 회의로 갔다. 조셉 오토 지부장은 전통적인 의식과 술, 그리고 복수 결혼 등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추장직을 수락하겠다고 말하였다. 추장들은 그의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였다.

코조 추장이 권위의 상징인 켄티 의상을 입고 있다.



1992년에 시에라 레오네 출신의 에밀 윌슨 자매가 친숙한 교회 의식인 침례(왼쪽) 및 신권 성임(위)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염색천으로 만들었다.



이 역사적인 사진에는 나이지리아 에누구의 초등협회 회원들이 초기 물은 개척자들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들도 복음에 있어서는 개척자들이다.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

이 데일 레바론

설명어 붙은 사진 이외의 사진은 저자가 직접 촬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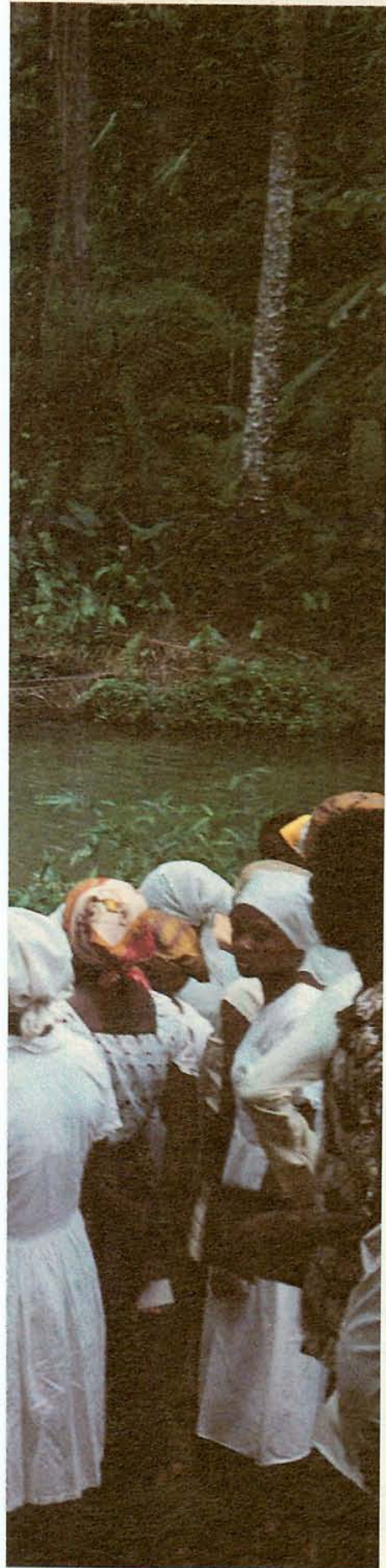
남 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의 모세스 말랑구는 침례 받기까지 장장 16년 동안 을 조금도 굶핍 없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말랑구 형제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천사가 나타나 해야 할 일을 지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즉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매우 충실하게 기다렸다”(사도행전 10:1~7 참조)는 고넬료에 비유했다. 현재 67세인 모세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정원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 성전의 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말랑구 형제는 1978년 6월에 스

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모든 합당한 남자에게 신권과 성전의 축복을 부여하라는 계시를 받고 그것을 발표함에 따라 축복을 받은 수많은 아프리카인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러, 복음과 그 신권의 축복을 받는 아프리카인들이 더욱더 늘어남에 따라 주님께서 복음이 회복된 때의 초기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과 같이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축복해 오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세워진 것은 1853년이었지만, 교회 사업이 아프리카 흑인들 사이에서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후부터였다. 그랜지 피셔

1978년 6월에 신권에 관한 계시가 있는 뒤,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는 서아프리카로 진출하였다. 1978년 3월 4일에는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 주의 이콧 이요라는 마을 근처 조그만 개울에서 67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 전날에는 1백 7십명이 침례를 받았다.





모세스 말랑구



조셉 더블류 비 존슨



안토니와 피델리아 오비나

형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부장으로 봉사해 오다 해임되었을 때, 대관장단은 그에게 교회의 이름을 차용하여 쓰고 있던 나이지리아의 몇몇 종교 단체들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피셔 형제는 그들이 회복된 복음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로부터 6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1966년에 그 시도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공식적인 선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받지 않은 아프리카의 개종자들은 교회 서적과 영감에 찬 지시를 받아들였다. 이 헌신적인 사람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매우 먼 곳까지 자주 갔으며, 자신들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확신을 이웃에게 전하였다.

가나의 조셉 더블류 비 존슨

조셉 더블류 비 존슨은 가나의 그러한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존슨 형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은 후, 1964년에 개종했

다. 그는 개종한 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들려준다. “어느 이른 아침, 평상시와 같이 일할 준비를 하다가 저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슨아, 존슨아, 존슨아’ 하고 제 이름을 세 번 부르더니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다 행하면 내가 너와 네 땅을 축복하리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영에 인도되어 거리에서 거리로 다니며 몰몬경에서 읽었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14년 후,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이미 존슨 형제가 조직한 침례받지 않는 회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초기 개종자들 가운데 교회의 공식 회원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선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갔다.

나이지리아의 안소니 오비나

나이지리아의 안소니 오비나도 아

프리카의 초기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1960년대의 어느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어떤 키가 큰 분이 제게 오시더니 저를 가장 아름다운 건물 한 곳으로 데려가 그곳의 모든 방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1970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솔트레이크 성전 그림이 포함된 “몰몬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그것은 제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건물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오비나 형제는 교회에 그런 글을 보냈다.

1978년, 오비나 형제의 가족은 신권과 관련한 계시에 대해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대관장단에 보냈다. “대관장단 여러분이 성전의 기도하는 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 저희들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도록 간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희의 마음은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형제님들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비나 형제의 가르침과 지도자로서의 역할로 인해,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이지리아의 첫번째



‘앗제이 크와메이



엠마뉴엘 아부와 엘리자베스 키시



키시 박사가 엘리자베스와 함께 세운 테저렛 병원 앞에서 있다.

말일성도 예배당은 아보 엠바이스에 있는 오비나 형제의 집 근처에 세워졌다.

짐바브웨의 앗제이 크와메이

앗제이 크와메이 형제는 짐바브웨에서 교사직을 맡고 있을 때 느꼈던 영의 속삭임에 의해 교회로 인도되었다. “저는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에 관한 꿈을 계속 꾸어 왔었지요. 짐바브웨의 퀘퀘를 지나던 중에 저는 그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항상 제 꿈에 나타났던 것을 알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어느 일요일에 그 교회를 방문한 그는 “몇몇 사람들에게서 정말이지 아주 오래 전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 온 사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예배 모임의 일환으로서 퀘퀘 지부의 회원들은 자신의 간증을 발표했다. 크와메이 형제는 연단으로 가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다고 말씀했다. 후에 그는 선교부장의 아내인 햄스테드 자매를 만났다.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정말로 우리 두 사람에게 내렸습니 다.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벗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자주 방문했던 곳에 갔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지금은 마치 제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나의 엠마뉴엘 아부 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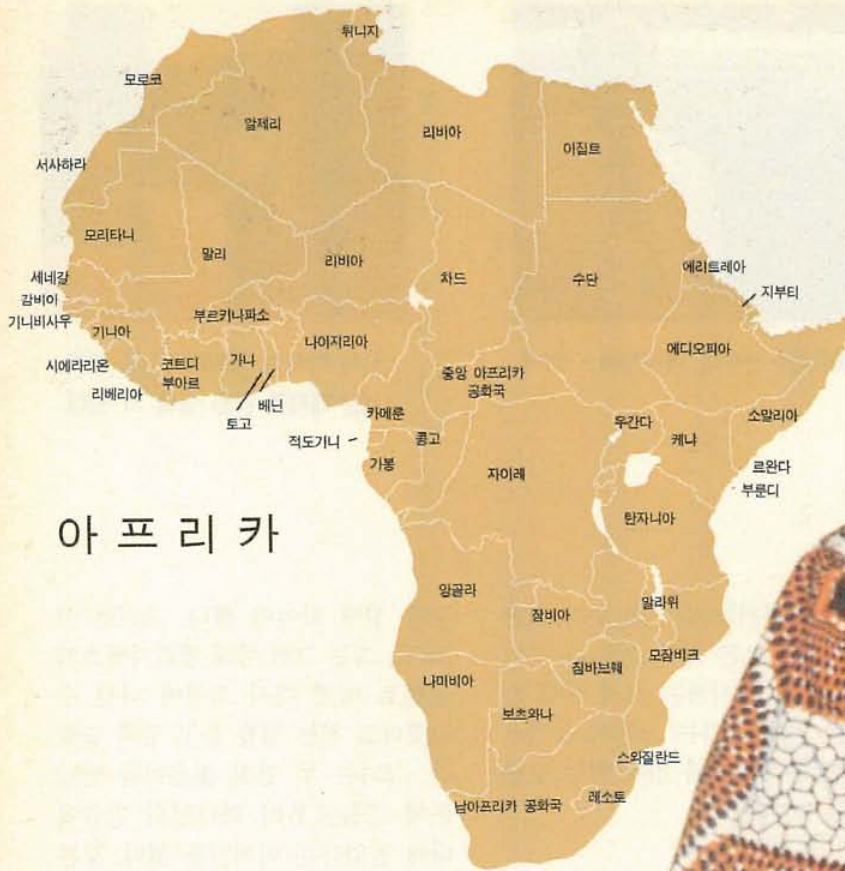
엠마뉴엘 아부 키시 박사는 가나의 첫번째 개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거의 평생을 영적인 충족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저는 성경을 몇 번씩 읽었으며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해 왔습니다. 저는 기독교 정신은 물론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들은 웬지 무언가 비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의과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도 키시 박사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이상을 충족시켜 줄 교회를 찾기를 소망하며 계속 성경을 공부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의학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2년을 생활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건강상의 문제로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수개월

동안 집에 있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전화로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갈 수 있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두 명의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토론하는 중에 키시 자매는 그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키시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와서 아내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축복하고 나자, 아내는 이미 완쾌되어 버렸습니다.”

키시 박사는 물론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기이한 업적을 읽었다. 그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졌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저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번째 시현은 그야말로 감명깊었습니다. 저는 그의 위치에 서서 그가 경험한 모든 부분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받은 후 키시 박사 부부는 가나로 돌아왔으며, 키시 박사는 후에 그곳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키시 박사 부부는 아크라에 테저렛 병원을 세웠으며, 가나에 처음



아프리카



위: 1950년대 말과 60년대 말 및 70년대 말에 나이지리아와 가나에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되었다. 이 모임들은 공식적인 선교 사업과는 무관하게 구성된 것으로, 대부분 서로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78년에 정식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 모두 기꺼이 **말일성도**가 되었다.

오른쪽: 가나의 프리실라 샘슨-데이비스는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그녀의 원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으로 두 개의 스테이크가 세워진 1992년에 키시 형제는 지역 대표로 부름받았다.

가나의 프리실라 샘슨-데이비스

프리실라 샘슨-데이비스가 처음 선교사들을 만난 것은 1964년으로, 네덜란드에 살 때였다. 그녀의 남편은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거부했으나, 샘슨-데이비스 자매는 흥미를 갖고서 *물몬경*을 읽었다. 가족이 가나로 돌아온 후, 그녀는 교회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존슨 형제의 그룹을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그 그룹에 참여하였다. 14년 후 선교사들이 가나에 처음 왔을 때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맨 처음 침례를 받은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엔가 교회 모임에 참석한 후, 샘슨-데이비스 자매는 한 시현을 보게 되었다. 마치 성찬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단상에 서서 손짓을 하며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저는 다가가서 그분 곁에 섰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주위를 둘러보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이 모두 성찬식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왜 그들 가운데 함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

아 영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래도 부르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의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네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썩 잘 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시현이 끝난 후, 그녀는 “이스라엘의 구주”를 모국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깊진 진주*와 *복음 원리*와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자료들을 번역해 나갔다. 이 자료들은 아직 준비중에 있다. 프리실라 자매는 *물몬경* 번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선교부장님과 번역에 관해 토론을 하던 중에 그분은 제게 계속해서 번역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항상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마치 누군가 제 뒤에 서서 ‘아니야, 이 단어를 써야지’ 혹은 ‘아니야, 그 단어가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지우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이 언제나 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클레멘트 뇌포르

회원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욱 열심히 새로 알게 된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예를 들면, 클레멘트 뇌포르 박사는 백만 명 이상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이자 나이지리아의 아바 지역에 거주하는 유명하고 인기 높은 시민이다. 오누오코아 형제는 딸의 진찰을 위해 딸을 뇌포르 박사에게 데리고 왔다가 박사에게 그의 철학과 지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당신을 이 우주에 보내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답한 말을 들은 지 오래지 않아 뇌포르 박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 다.”라고 말했다. 뇌포르 박사는 침례받은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988년 5월 15일에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나이지리아의 아바에 첫번째 아프리카 서스테이크를 조직할 때 고등 평의원으로 성별되었다.

우간다의 에드워드 오주카

미국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에서 교회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동



클레멘트 뇌포르



로버트 이스라엘 무힐레



벤슨과 닉스 카수에이

안 침례받았던 아프리카인들 대부분은 미국의 초기 회원들과 같은 특별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은 그들에게도 매우 강하게 임하여 그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 준비시켰다.

우간다의 에드워드 오주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대학 공부를 위해 호주로 유학을 가 있는 동안 호주의 퍼스에서 선교사들을 만났다. 에드워드는 4개월 동안 복음 공부를 한 뒤 침례받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그레이스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전부터 다니던 교회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내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라고 에드워드는 말한다.

에드워드는 1987년에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우간다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기로 결심했다. “기적의 고리”를 통해 그는 꼭 필요로 했던 장학금을 받게 됨에 따라, 1988년에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유타주 프로보로 이주했다. 3개월 후, 그레이스는 침례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1년 후 그의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학문과 교육을 세상과 교회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심어린 바램입니다.”라고 에드워드는 말한다.

탄자니아의

로버트 이스라엘 무힐레

.....

어떤 지역에서 첫번째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는 기성 교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는다.

로버트 이스라엘 무힐레는 탄자니아에서 첫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로버트는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말일성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교회에서 부부 선교사를 만나 토론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다. 1991년 5월에 장로로 성임된 그는 탄자니아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르에스살람으로부터 천 마일 정도 떨어져, 가는 데만도 버스로 사흘이나

걸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6개월 후에 로버트는 케냐의 나이로비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선교부장으로부터 직접 성찬을 집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저는 그 상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침울해 있었습니다.”라고 로버트는 말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로버트는 계속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예배 모임에 참여하자고 권고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말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예배 모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예배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성찬 물과 성찬 빵과 손 씻을 물과 조그만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큰소리로 혼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제 찬송가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개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혼자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성찬 찬송을 부르고 성찬을 준비했

에드워드 오주카와 그의 가족, 에드워드는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 그레이스는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일요일 아침마다 어린이들은 나무 가지로 치울루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 정자를 깨끗이 쓴다. 침례탕으로 쓰기 위해 물탱크를 나이로비에서 치울루에 가져 왔다. 줄리우스 카우스가 새 침례탕에 서 있다.

습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축복한 뒤에 그 성찬을 취했습니다. 성찬을 취한 뒤에는 그 성찬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찬을 기록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서 말씀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일 학교 모임을 하는 것처럼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한 뒤 신권회 교재에서 제가 그날 보겠다고 정한 공과를 읽었습니다. 그런 후 폐회 찬송을 부르고 폐회기도를 했습니다.”

고향에 온 지 두 달 후에 로버트는 탄자니아에 처음으로 파견된 러베이, 조이스 커훈 부부 선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통역사로 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다르에스살람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나이로비에서 개종한 조이 나시우마를 만나 결혼했다. 로버트와 조이는 1993년 7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결혼 인봉을 받았다.

케냐의 벤슨 카수에이와 닉슨 카수에이

케냐의 초기 개종자들 중에는 벤슨 카수에이, 닉슨 카수에이 두 형

제가 있다. 벤슨은 열 여덟 살에 미국의 데니스 킬즈 가족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킬즈 형제는 케냐에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던 수의사였는데, 벤슨을 고용해 자신의 일을 돕게 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우정이 계속됨에 따라, 벤슨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벤슨은 그의 동생에게 복음을 소개했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케냐에 온 후 그 두 형제는 선교사들과 공부를 하였으며, 침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교회 등록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 4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침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공식적인 등록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누구라도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1985년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침례를 취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마침내 두 카수에이 형제는 침례를 받았다. 1986년에 벤슨과

닉슨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첫 번째 케냐인들이 되었다. 벤슨은 켈리포니아에서, 닉슨은 워싱턴 디스에서 봉사했다.

치울루의 성도들

벤슨과 닉슨은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각각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계속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 두 형제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형인 줄리어스도 있었다. 줄리어스는 4년간 복음 공부를 한 뒤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케냐의 나이로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백 5십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골 마을인 치울루로 돌아갔다. 줄리어스와 그의 아내 사비나는 그곳에 있는 지부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치울루 성도들의 경험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새롭게 열리는 집회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치울루의 회원들은 예배 의식을 갖기 위해 약 40명 가량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를 지었다. 벽은 나무 가지들을 서로 엮어 만들었으며, 지붕은 골함석과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어린 아이들은 나무 가지로 그 정자를

깨끗하게 쓸었다.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다 환경도 원시적이어서, 침례를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 침례탕으로 쓰기 위해 나이로비에서 물탱크를 가져 왔다. 샘에서 펌프질하여 충분한 물을 얻는 데만 나섯 시간이 걸렸으며, 그곳에서 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새로운 침례탕까지 끌고 가야 했다. 그런 다음 침례받을 사람이 물에 잠길 수 있을 만큼 물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십여 명의 성인들이 침례탕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했다. 첫번째 침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0명이 토론을 배우고 침례 접견을 했다. 이들이 침례받고 확인받음에 따라 지부의 회원 수는 거의 배로 증가했다. 1993년 8월까지 치울루에는 두 개의 지부가 있게 되었으며, 두 지부의 회원 수는 모두 3백 5십 명이었다.

1992년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 치울루 지역의 성도들은 거의 기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래리 브라운 선교부장과 당시 치울루 지부의 줄리어스 카우스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옥수수와 콩 1.4톤 정도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운송되었다. 부부 선교사인 테드 맥닐 장로 부부는 그 식량을 운송하기 위해 나이로비에서부터 힘든 여행을 했다. 맥닐 장로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약 여덟 명의 여인들이 와서 트럭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화산암들을 굴러 내고 길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력을 다해 길 닦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제게 그런 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량 열 일곱 자루를 실은 트럭이 도착하자, 성도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카우스 지부장 부부는 밤새도록 죽을 끓여 너무 쇠약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부장은 모든 가정을 일일히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였다.

교회 회원들이 앞으로의 긴급 사태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수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거의 2년 동안 비 한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1992년 10월 21일에 40여 명의 성도들과 60여 명의 비회원들은 작물 하나를 심은 뒤에 특별 금식을 하고 주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간구하였다. 교회 영화인 *하늘의 문을* 가져 와 전기 시설이 있는 몇 안 되는 공공 장소 중 한 곳에서 상영하였다. 일 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비가 내렸다. 농작물은 잘 자랐으며 사람들의 신앙도 크게 자랐다. 그들은 풍성한 수

확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교회 회복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개종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신권에 대한 계시가 있는지 15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의 흑인 성도들의 수는 초기 교회의 성장률과 비등한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님은 참으로 “만민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인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기 때문이다.(니파이서서 26:33)

주님은 분명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 인내심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싶어하실 것이다. 교회는 이 아프리카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 아프리카인들은 지금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데일 레바론은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로, 교회 역사 및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영원을 위한 도로

리사 에이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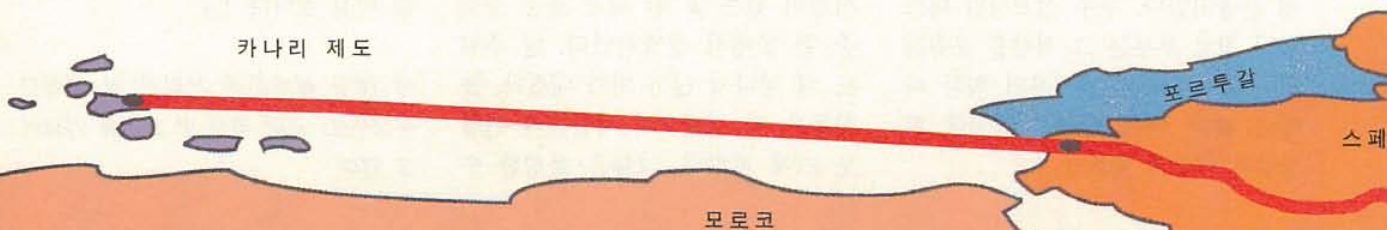




사진: 1000 마일 여행



사진 촬영: 피기 켈리/아연

성전에 가기 위해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세 나라를 횡단해야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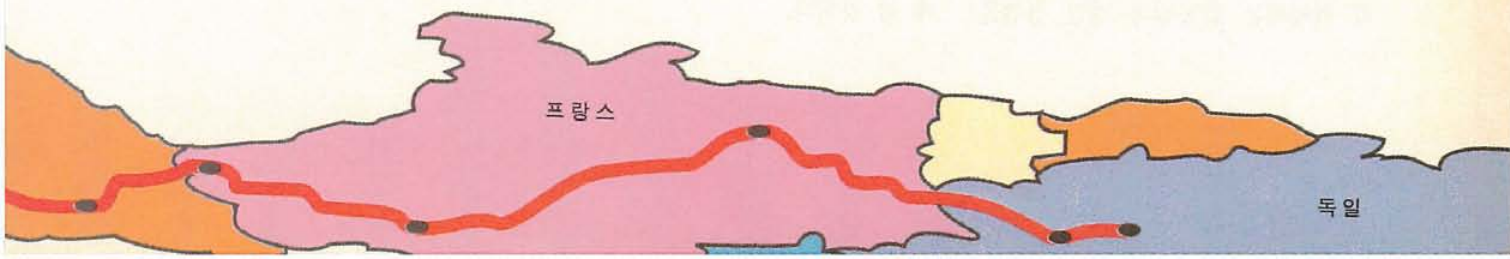
활 기에 찬 여덟 명을 조그만 승합차에 40시간 동안 태워 여행하면서 또한 기계 고장과 비, 차멀미 및 배멀미에 시달린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마레로 가족의 경우에는 바로 “천국”이다.

“정말 제 생에서 가장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열 다섯 살 난 라켈은 자신의 가족이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갔던 여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마레로 가족처럼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들은 모로코 해안에서 약 팔십 킬로미터 떨어진 스페인령 카나리 제도 가운데 한 섬인 테네리페 섬에 살고 있다. 그들은 성전에 갈 준비를 마쳤으나, 가장 가까운 성전이 독일에 있었기에, 그곳을 향해 바다를 건너고 세 나라를 횡단할 수밖에 없었다.

일곱 살의 루시, 아홉 살의 파비오, 열 한 살의 올리버, 열 다섯 살의 라켈, 열 일곱 살의 데시라, 열 일곱

여행



살의 오스카와 부모인 미구엘과 안젤라로 구성된 마레로 가족에게 비행기값은 정말 막대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이 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여행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미구엘은 목수일을 했으며, 나머지 식구들도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들은 미구엘이 두 개의 침대가 딸린 아영용 차량으로 개조한 작은 승합차를 타고 여행을 하기로 했다. 이 차를 연락선에 태우고 팔 백 킬로미터 떨어진 스페인까지 배로 여행을 했다.

“우리는 모두 배멀미를 했습니다. 마른 땅을 다시 보았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라고 라켈이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여러 시간을 운전하고 밤에는 별을 보고 자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 땅을 달렸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스페인 번호판을 단 차를 보면 경적을 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라고 데시라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와 우리가 알고 있던 스페인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라켈은 이렇게 덧붙인다. “아버지께서 차를 운전하고 수리도 하였습니다.” 다른 고장도 잦았지만 그 가운데도 특히 전기 장치가 자주 고장나서 한밤 중에 조금 가다가 가는 차를 세워 조명 장치를 수리하곤 했다. 드디어 그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시키고는 날이 밝아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렸다.

거의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성전은 프랑크푸르트 교외의 프리드리히도르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서투른 독일어로는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결국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택시 운전사를 고용하여 길을

안내케 했다.

“성전 지붕의 모로나이 천사를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라켈은 말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데시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족이 인봉을 받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하얀 옷을 입은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레로 가족은 성전에서 약 4일을 머물며 부모는 인봉 의식을 받고 장성한 자녀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았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으나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특히 다시 해야 할 도로 여행이 지루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4일 동안 그들의 생활은 변해 있었다. 라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전처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행 자체가 인생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헤쳐 가며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해의 왕국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든 고난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도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라고 데시라는 말했다. □

여러분이 성전에 가려 한다면

성전 방문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풀거나 가족 인봉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야 한다.

• 여러분이 21세 이상 18세 미만이라면 특별히 “제한 사용” 추천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감독님과 개인 접견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은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사전에 성전에 연락을 하여 미리 여러분이 받을 의식의 일정을 잡는다.

• 여러분은 가장 합당한 옷을 입고 성전에 가야 한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흰 옷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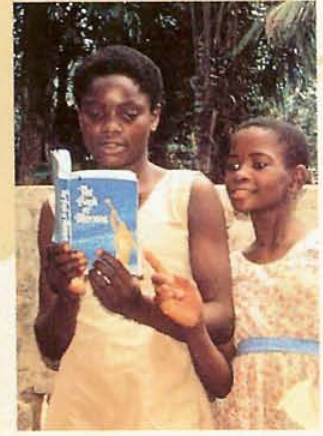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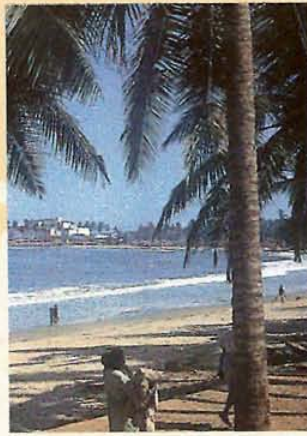
• 이러한 방문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또한 해의 왕국의 가족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고 사랑함으로 써,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 □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

1985년 8월에 있었던 성전 헌납 기도에서, 고든 비 윌리 부대장은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전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들의 축복과 인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소묘의 땅에 평화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지반 위에 주님의 길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관련 기사,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 96쪽 참조)

아프리카



19 78년 신권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기 오래 전부터, 주님께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시키셨다. “준비된 사람들”(32쪽) 및 “아프리카의 복음 개척자들”(36쪽) 참조.

